

“어린이 독감백신 없어요”... 부모들 발 동동

도내 대부분 소아과 병의원 영·유아 독감 백신 ‘바닥’ 온라인 게시판마다 백신 접종 가능 병의원 찾기 분주 보건당국 “곧 정상화”... 전문가 “조바심 낼 필요 없어”

“아이가 지난달 1차 독감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 2차 접종을 하려고 하니 동네 모든 소아과에서 무료 백신이 없다고 해 접종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하고 있어요”

도내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서 영·유아용 독감 무료 백신 부족으로 인한 접종 일시 중단 사태가 잇따라 발생해 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백신 접종이 가능한 도내 병원을 수소문하고 있던 손혜진(36·여)씨는 “14일 독감 백신 예약에 성공했는데, 그마저도 취소됐다”고 토로했다. 제주지역 온라인 게시판에도 영·유아 백신 접종이 가능한 병원을 문의하

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주 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서 6개월~12세 이하 어린이들의 독감 무료 백신이 부족해 접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제주시 소재 소아청소년과 병원 10곳을 확인한 결과 2~3일 전부터 백신이 바닥을 드러냈다. 한 소아과 병원 관계자는 “평소 같으면 물량이 들어오면 연락을 드리겠다고 안내하는데, 올해는 물량이 언제 들어올 지 병원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 무료 백신 물량만 부족한 이유에 대

해, 이 백신의 유통 경로가 다른 연령대에 공급되는 백신과 다른데다 최근 무료 백신 상은 노출회수되는 사태가 벌어졌던 점을 꼽았다. 또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접종을 받으려는 인원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을 위한 무료 독감 백신은 보건당국이 물량을 일괄 확보해 병원에 배송하고 있다. 하지만 6개월~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용 백신은 병원이 제조사 등으로부터 백신을 직접 구매하고 이후 정부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원래 백신은 제조사에서 전년도 생산량을 기준으로 생산에 들어가는데, 최근 무료 백신 중 일부가 상온에 노출돼 회수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제조사로부터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의 여러 문제로 영유아 백신 부족 사태가 빚어

지고 있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질병청에서 만 13~18세 용 백신을 만 12세 이하 백신으로 활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져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그럼 바로 접종이 가능하다”며 “보건소가 갖고 있는 백신 물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종면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독감 예방접종을 한 뒤 2달 정도가 지나야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독감 유행 2달 전인 지금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시기에 반드시 맞추기보다 언제든지 맞는 게 원칙”이라며 “태어나서 처음 독감 백신 주사를 맞는 아기들은 1차 접종을 하고 한달 후 2차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2주 정도 차이가 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대희기자 dhkang@ihalla.com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2명 고발조치

15일 기준 225명 격리 조치 도 “지금까지 13명 무단이탈”

제주특별자치도는 자가격리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해외입국자 2명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 조치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1일 미국에서 입국, 당일 입도 한 뒤 지난 12일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도 오후 10시쯤 담배 구매를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B씨도 지난 13일 일본에서 입국한 다음날인 14일 제주보건소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오후 4시쯤 식료품 구입을 목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이들은 모두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자가격리업 이탈 알람과 전화 안내 과정에서 이탈 사실을 1차로 확인한 후 현장 재확인을 거쳐 무단 이탈자로 확정됐다. 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방침을 결정했다.

15일 기준, 도내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는 13명이다. 도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의 경우,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격리장소를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방문 이력으로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자는 이날 기준 225명이다.

백규기자

고유정, 아들 친권 상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가사비송 2단독은 지난해 6월 고유정 전 남편의 남동생이 고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권 상실 및 고씨 아들 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고씨 측은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상민기자

우도 해상서 어선 선장 실종

우도 해상에서 29t급 어선 선장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 중이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전 6시44분쯤 제주도 북쪽 27km 해상에서 경상남도 통영 선적 A호(29t 급) 선장 B씨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선적의 선원들은 “B씨가 지난 밤 조업이 종료된 뒤 닻을 놓은 후 동료 선원들과 함께 취침했는데, 일어나 보니 선장이 보이지 않아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대희기자



노형동 폐건축자재 화재 15일 낮 12시40분쯤 제주도 노형동 아적장에 쌓여둔 폐건축자재에서 불이 났다. 제주소방서는 신고를 접수한 뒤 소방차 10여대와 소방관 수십명을 현장에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30여분만에 불을 모두 꺾었다. 이날 화재로 합판 등 폐건축자재와 인근 소나무 일부가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강대희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26명 기소의견 송치

제21대 제주지역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6명이 적발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

난 총선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인원은 33명으로 이중 26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나머지 7명에 대해서 불기

소의견을 달았다.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금품선거가 9명(4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거짓말 선거 4명(7건), 선거폭력 5명(5건) 순이었다. 거짓말 선거와 현수막·벽보훼손, 인쇄물 배부, 사전선거운동은 각각 1명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경찰 범인 검거율 전국평균 밑돌아

지난해 81.2%... 전국 83.3%

제주 경찰의 범인 검거율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경찰청의 범인 검거율은 평균 83.3%다. 검거율은 2017년 85%, 2018년 84%, 지난해 83.3%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제주청의 검거율은 2017년 82.3%, 2018년 83.7%로 소폭 상승했다가 지

난해 81.2%로 하락했다. 지난해 제주청 검거율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 2.1%포인트 낮았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가장 검거율이 높은 지방경찰청은 광주청(89.3%)이었다. 이어 전북청(89.1%), 전남청(87.5% 순이었다

오영훈 의원은 “최근 추적·검거가 어려운 지능범죄 발생도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검거율 제고 방안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기자

쓰러진 노루 피하러다 6중 추돌사고

도로에 쓰러져 있던 노루를 피하러다 차량 7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6분쯤 제주도 와흘리 와흘교차로 서쪽 인근에서 차량 7대가 연달아 부딪히는 6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제일 앞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노루를 피하러다 발생했다. 해당 차량이 쓰러진 노루를 피해 급하게 멈추자 뒤따라 오던 차량 6대가 제때 멈추지 못하고 급정거하면서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차량 탑승자 2명이 경상을 입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운전자 및 탑승자 12명은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가장 앞선 차량은 도로 위에 쓰러진 노루가 보이자 차량을 급히 세웠는데, 뒤따라 오던 차량 6대가 급정거하면서 연쇄 추돌이 발생한 것”이라며 “죽은 노루는 사고 차량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강대희기자 dhkang@ihalla.com

그랜드 보청기

호국보훈의달 특별 할인 행사

※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대행 해드립니다.

- 제품군1 - 70만원 이하 (40개 제품)
- 제품군2 - 70만원 초과 ~ 90만원 (105개 제품)
- 제품군3 - 90만원 초과 ~ 111만원 (125개 제품)
- 제품군4 - 111만원 초과 (37개 제품)

※ 제품군에 속하는 보청기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샵샵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세계최초 인공지능 총전식 귓속형 보청기

제주도내 전지역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

비총전식 보청기 6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라 사거리 동쪽 100m 행복방직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점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심의번호 2018-GN1-11-0011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

제주시 동광로 4, 삼육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 한국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 국제보청기(국가계정) ● 한라체육관 ● 실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계 2층)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濟州) 리모델링
辛一(辛一) 祚(祚)

누수방지 가시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복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방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도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